

「주주총회 활성화방안」 관련 간담회 말씀자료

1. 인사말씀

□ 안녕하세요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.

- 새로 선출된 권용원 협회장님과 증권회사 사장님들이 상견례를 하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□ 2017년 자본시장은 무엇보다 오랫동안 ‘박스피’에 갇혀 정체된 모습을 보였던 주가지수가 높은 수준의 상승세*를 보이는 등 참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.

* 세계 주요국 지수 상승률('16말 대비)

- 美 다우존스 34%, 獨 DAX30 16%, 日 Nikkei225 24%, 韓 코스피 27%

- 코스피 지수는 2011년 이후 6년만에 2,200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*하였고,

* 코스피 최고점 : (종가) '18.1.29 2,598.19p (장중) '18.1.29 2607.10p

- 코스닥 지수도 10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*하면서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***하였습니다.

* '18년 중 최고점 (종가) '18.1.29 927.05p (장중) '18.1.30 932.01p

** 월간 일평균 거래대금 : (코스피) '17.1월 4.2조원 → '18.1월 7.0조원(+67%)
(코스닥) '17.1월 2.8조원 → '18.1월 8.7조원(+211%)

□ 이러한 시장상황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세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나,

-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증권회사들의 노력이 그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-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작년과 달리 금리인상 기초,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많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만,
 - 업계가 신임 회장님과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, 우리 시장이 직면한 리스크 요인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

2. 「주주총회 활성화 방안」 추진배경

- 오늘 저는 그간 정부와 상장회사, 증권유관기관들이 함께 마련한 「주주총회 활성화 방안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 -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은 기본적으로 상장회사의 책무로서 증권회사와 관련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
 - 상장회사와 주주는 우리 자본시장을 이루는 골간인 만큼, 자본시장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증권회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
-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, '91년 도입되어 지난 26년 동안 상장 기업들의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해주던 새도우보팅 제도가 작년말 폐지되었습니다.
 - 새도우보팅 제도가 상장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만,
 - 도입당시와 현격하게 달라진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과 최근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관심 제고 등 변화된 자본시장 환경을 감안하면 더 이상 이 제도를 존치하기는 어렵다는데 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.

- 올해는 새도우보팅이 폐지된 첫 해로서 **주주총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**입니다.
- 그간 새도우보팅 폐지에 대비하여 상장회사들이 **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온 것**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그러나, 일부 지분분산도가 상당히 높은 회사들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,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3. 증권회사에 대한 당부

- 이에, 지난 2.1일 정부는 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 및 증권유관기관등과 함께 「**주주총회 활성화 방안**」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른 **후속조치**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.
- 주주 총회 활성화 방안은 크게 ① 상장회사의 자발적인 주주총회 환경 개선 유도, ②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독려, ③ 주주총회 홍보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됩니다.
- 첫 번째 과제인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환경 개선은 주주총회 자율분산프로그램 운영과 집중일에 주총 개최시 소명의무 부과 등을 통해 **슈퍼주총데이**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,
- 세 번째 과제인 홍보 강화는 증권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**대국민 홍보활동**을 추진하는 내용으로,
- **상장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책적 효과를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는 과제**들입니다.

□ 반면, 두 번째 과제인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독려의 경우 증권회사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.

○ 현행 법령상 상장회사들은 “성명과 주소” 이외에는 주주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.

- 이에 따라, 상장회사들은 주소지로 찾아가는 방법외에는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

○ 장기적으로는 법률을 정비하여 상장회사들이 직접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주주정보를 상장회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만, 오는 3월까지 법률을 개정하는 일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.

○ 이에, 상장회사와 주주들의 연결고리로서 주주들의 이메일주소,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지원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.

□ 주주총회 지원TF가 마련한 「주주총회 활성화 방안」에 따라 이미 각 증권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주주총회와 관련한 안내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① 각 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를 안내하고, 링크를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② 매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통보를 통해서도 주주총회와 의결권 행사 방법 등을 안내하고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이에 더하여,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3월에는 증권회사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 집니다.
 -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소액주주 비율이 전체 주주의 75%를 초과하여 일반 결의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장회사들이 약 100여개 남짓 있다고 합니다.
 - 이러한 회사들의 주요 주주들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에서 영업망을 활용하여 유선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 방법을 안내하고, 이를 적극 독려해 준다면,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이러한 증권회사의 역할은 협회가 TF를 운영하면서 개별 증권회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, 전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, CEO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효과가 더 커질 것입니다.
 - 증권회사들은 자본시장의 일원으로서 그 생태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, 대승적 차원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4. 마무리 말씀

- 주주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, 경영진의 회사 운영을 관리·감독하는 자본시장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.
 - 증권회사는 상장기업과 주주들을 연결하는 중개인인 만큼,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의 권리 행사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선관주의 원칙에 부합한 영업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.

- 올해를 계기로 증권회사들이 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, **고객 만족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본 시장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**

- 오늘 간담회에서는 「주주총회 활성화 방안」 뿐만 아니라 **시장과 산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**

- 새로 선출된 금융투자협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위한 **건전한 정책대안을 발굴해 주신다면, 정부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.**

- 다시 한 번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권용원 협회장님과 증권회사 사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.